



오늘의 날씨와 생활 12월 27일 화요일 음 12월 5일 (12월)

기상정보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Jeju, Seongsan, Goseong, and Seogwi.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 for tomorrow and the day after.

월드뉴스

'아바타'도 못 구한 美박스오피스

코로나19 이후 흥행 저조 영화 시장 회복 못해

올해 북미에서 쟁쟁한 영화들이 개봉했지만,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의 흥행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서치 회사 컴스코어가 북미 2000개관 이상에서 수주간 상영된 영화들의 박스오피스 수익을 집계한 결과, 올해 크리스마스까지 총 72억3000만 달러(약 9조2000억원)로 나타났다.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 '미니언즈2', '토르: 러브 앤 썬더'.

구름많음

제주는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6℃, 낮 최고기온은 8~11℃로 예상된다.

Table with sunrise and sunset times for Jeju.

식중독지수 주의, 감기가능지수 주의

미세먼지 (PM10)

Table with PM10 forecast: Good, Normal, Bad, Very Bad.

초미세먼지 (PM2.5)

Table with PM2.5 forecast: Good, Normal, Bad, Very Bad.

한라칼럼



문만석 (사)한국지역혁신연구원장·법학박사·독자위원

지하철이나 버스의 노약자석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교통약자를 위해 마련한 좌석이다. 지하철의 노약자석은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법' 제15조에 의거해 교통약자 전용석으로 설치되고, 버스의 교통약자 우선석이나 임산부 배려석은 법률로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설치된다.

배려의 역할

은 강제성이 없어 위반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다. 설치 근거가 어떠한 노약자석은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와 시민의 양보가 전제되어야 올바르게 작동될 수 있다.

간혹 배려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예전 굳이 노약자석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노인과 약자를 위해 기꺼이 자리를 양보하던 관습이 사라지고, 노약자석이 아닌 자리에서는 양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권리 의식이 자리 잡았다.

또한 배려가 양보를 강제하는 경우도 생긴다. 임산부는 일시적 교통약자로서 교통약자석의 대상이지만 교통약자와 별도로 임산부 배려석을 설치하여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저출생 시대 모성보호를 함께 고려한 조치이다. 그런데 임산부가 제대로 배려받지 못한다고 판단해서인지 광주지하철에서는 임산부 배려석 위에 감지센서가 설치돼 '임산부가 아니라면 자리를 비워 달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고, 부산 지하철에서는 임산부가 발신기를 소지하고 지하철을 타면 임산부 배려석의 수신기가 깜빡이며 음성안내가 나오는 '핑크 라이트'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해묵은 논쟁은 보편적 복지나 선택적 복지냐의 문제이다. 무상급식, 아동수당, 코로나19 전 국민 지원금 등에서 복지 혜택을 모두에게 제공해야 하는지 아니면 취약계층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배려에는 주체와 대상이 있다. 복지 서비스나 배려는 대상이 없으면 판단해야 한다. 배려의 대상이 서로 분열되고,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면 배려는 오히려 차별이 된다.

배려는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사회 분위기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이다. 노약자를 존중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며 어려운 사람에게 마땅히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일은 윤리와 문화의 영역이다.

배려를 법과 시스템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배려의 문화를 교육·홍보해야 한다. 달랑 노약자석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노약자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사회는 경쟁이 아니라 배려로 유지되고, 배려가 차별이 아니라 공존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힘은 드러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사회에 내재돼 있다.

열린마당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하며



강경림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국내 첫 환자가 확진된 2020년 1월 20일부터 1급에서 2급 법정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된 2022년 4월 25일까지 총 819일은 우리 사회에 다각도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온 국민들은 심각한 건강 위협에 전전긍긍해 지나온 날이었다.

지금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들쭉날쭉해 긴장의 끈을 놓기는 쉽지 않은듯하다. 2년이 넘는 싸움의 긴 터널을 지나며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생각들을 마음에 담고 있을 것이다.

알맞은 지침이 없어 시행착오를 매번 겪어야만 했고, 자연스럽게 하루하루 정리한 결과를 토대로 백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새해 첫날, 겨울바다에 빠져보자



강진화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왕바다거북이는 장수의 상징이다. 왕바다거북이의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진정한 데스 레이스를 시작한다.

알에서 태어난 수많은 새끼들 중 천적의 먹잇감을 피한 고작 몇 마리만이 살아남지만 살아남은 새끼들은 최소 80년 이상을 살아간다.

몇 해 전 이런 세계적인 희귀보호종 왕바다거북이가 서귀포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산란해 부화하는 모습이 발견됐다.

이러한 장수의 바다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드디어 3년 만에 '제2회 서귀포 겨울바다 수영대회'가 열린다.

계묘년을 맞이하는 새해 첫날, 1년에 단 한 번, 새해의 소망과 건강을 기원하며 겨울 바다에 뛰어들어보자.

차가운 바닷물의 기운을 한가득 담아내고 힘찬 자맥질로 내 안의 묵은 타성을 깨보자.

1년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행사는 10시부터 EDM 공연을 시작으로 펭귄핀 이어달리기와 어린이 행운 거북알 찾기, 펭귄 팔씨름왕·씨름왕 선발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있어 겨울 바다를 찾으시는 모든 분들이 즐겁고 신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운 손발을 녹일 따끈한 팔죽과 푸짐한 경품행사도 준비됐으니 많이 참가해 함께 나누길 바란다.

계묘년 1월 1일은 인간행권이 되어보기를 적극 추천한다.

사전신청은 서귀포시관광협의회 홈페이지(www.jejusta.or.kr)에서 가능하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fax, and email addresses.

Advertisement for '감귤 신품종 분양' (New Citrus Variety Distribution) for 2023, listing various citrus typ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All Citrus Variety Distribution) listing citrus typ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eogwi Jeongmyo.

Advertisement for '감귤묘목 분양' (Citrus Sapling Distribution) listing citrus types and price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Seogwi Jeongmyo.

Advertisement for '감귤묘목 분양' (Citrus Sapling Distribution) listing citrus types and price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Minseong Jeongmyo.